

## 대학생활 만족의 구성요인과 예언요인\*

김준곤 · 성한기 · 이춘희 · 박경자

효성여대 심리학과 효성여대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 만족도의 구성요인과 만족도와 관련되는 변인들과의 관계 및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알아보았다. 먼저 대학생활 만족도의 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5점 척도로 된 67문항의 조사를 830명의 여대생에게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일체감, 교수와의 관계, 학교 운영정책 등 1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요인별 만족도의 평균은 전체 만족도와  $r=.35$ 로서 만족스런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교에 대한 투쟁의사, 학교에 대한 신뢰, 가정 분위기, 개인적 행복도, 부모의 기대, 성격에 대한 불만, 정신건강 등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중다회귀 분석을 통하여 전체적 만족에 대한 단면별 만족 및 개인특성 변인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5개의 만족 요인과 2개의 개인특성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설명변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의 중요한 하위요인인 학교와의 일체감의 예언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확인해 본 결과, 21개의 만족요인과 개인적 요인 중 19개의 요인이 일체감과 유의한 단순상관을 보였으며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서 일체감의 예언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10개의 요인이 밝혀졌다.

대학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해왔으나 질적으로는 오히려 답보 또는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즉, 규모, 시설 및 자원 등의 환경적인 측면은 과거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무형의 정신적 측면인 소위 대학문화는 이와 비례해서 발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을 포함한 어떤 조직이던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의미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며(Schein, 1990), 이러한 조직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조직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감을 확보할 수 있다(이창우, 1990). 조직문화는 강도와 내용의 두가지 측면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문화가 명료하지 못하거나 문화의 부재 그리고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하더라도 부정적인 내용의 문화는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의 현실에 있어서 대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투영되는 역동적 체제임과 동시에 대학 출신자들이 정치, 경제 및 사회의 각 부분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대학문화의 정립은 국가의 질적 성장에 대단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대학문화의 황폐함은 대학생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어서 그들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반성해야 할 점으로 개인주의 성향, 학교와 학과에 대한 무관심, 수업 및 시험의 투쟁도구화, 면학열의 부족, 그리고 향락 및 퇴폐풍조의 순으로 들고 있다(한원택, 서주원과 성한기, 1987). 이는 곧 대학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시대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 대학은 생활지도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주로 대학생들의 개인문제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을 취해왔으며(예, 김재은과 안덕자, 1981; 성한기와 서주원, 1987), 특히 많은 대학에서는 Mooney와

\* 본 논문은 1990년도 문교부 지원 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Gordon(1950)이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을 번안, 수정하여 활용해 왔다(예, 이혜성, 손영숙 및 김미경, 1989; 한정신과 강혜원, 1989). 이러한 접근은 학생 개인에 초점을 두어 개인적 문제를 진단하고 상담 등을 통하여 개인문제의 해결 및 치료에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집단적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집단 수준에서 강구하여 구조적 개선을 시도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해왔다고 본다. 그리고 한덕웅, 전경구 및 이창호(1991)도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적 문제의 요인별로 심각성 정도를 진단해 보거나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등의 단순한 기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대학생활 적응이나 만족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을 가려내고 이 요인들이 작용하는 과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집단적 차원에서 대학생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며 기술적 분석과 아울러 중요한 예언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학의 전반적인 풍토와 학생 개개인의 생활의 질에 모두 관계된다고 보이는 요인들 중에서 대학생활 만족도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일체감, 정신건강 및 기타 요인들의 효과 및 관계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만족과 불만족의 차원을 밝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전체 만족도와 각 차원에 대한 만족도 및 정신건강 등의 제 요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전체 만족도 예언에 있어서의 각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본다. 또한 학교와의 일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요인들도 탐색한다.

민주화가 먼저 시작되고 근로자들이 노동 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집단적으로 충족시키려 시도해 온 선진 산업 사회에서는 일찌기 조직개발의 차원에서 조직을 진단하는 일환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사기, 조직풍토, 조직관리 시스템 등을 조사하여 활용해 왔는데, 대학생활 만족도 직무만족과 동일한 맥락에서 개념화 할 수 있다(Pennington, Zvonkovic & Wilson, 1989; Starr, Betz & Menne, 1972). 학생들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학

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며, 학문적 환경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Lawler(1973)는 직무만족이 직무수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개인생활 목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영실무에서 개인의 목표와 관련해서 중요시된다고 보았다. Locke(1976)도 직무만족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무만족은 다른 직무태도나 조직행동, 개인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유추하건데, 대학생활 만족도는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을뿐더러, 학생들의 학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각종 이슈에 대한 태도, 교수와 학교에 대한 신뢰, 자신의 장래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에 와서 만족과 노사관계 행동 및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Berger, Olson & Boudreau, 1983; Hamner & Smith, 1978; Schriesheim, 1978).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에 만족할수록 노조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불만이 많아질수록 노조에 의존하고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만족의 차원에서도 독립성, 다양성, 창의성, 성취감보다는 안정성, 회사정책, 임금, 작업조건 등에 대한 불만이 노조에 찬성하고 몰두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다. 이와 같은 접근들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업보다도 시위에 더 열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대학생활 만족도의 한 단면이지만 대학의 질적 발전의 중요한 지표임과 동시에 대학문화를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 학교와의 일체감(애교심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다)이다. 이에 관해서는 측정적 정의의 어려움과 이론의 부재로 말미암아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건인, 박종주와 손충기,

1988). 학교와의 일체감은 학교 조직에서 나타나는 집단응집성의 한가지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집단응집성이란 집단에 대한 매력과 집단에 머무르고 동기화된 정도로서 지나치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과멸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Janis, 1972) 적당한 응집성은 집단이 부여한 과제와 역할을 쉽게 수용하게하고, 집단규범을 기꺼이 다르게 하며, 집단에 대한 만족과 생산성도 높인다 (Fisher & Ellis, 1990). 애국심, 애향심 또는 애사심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일체감을 태도보다는 행동이나 행동의도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학교에 대한 호의적인 개입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일체감의 결정요인을 만족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이들이 일체감에 기여하는 정도와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일체감의 인과적 결정과정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조사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근거해서 그 해답을 얻어보려고 한다.

1) 대학생활의 만족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대학생활의 만족과 관련된 각종 척도를 바탕으로 새로 개발한 척도에 대한 반응을 요인분석하여 그 구성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단면별 만족은 전체적 만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만족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Lawler, 1973). 전체적 만족은 '대체로 볼 때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등의 단일문항으로 묻는 방법이며, 단면별 또는 요인별 만족이란 중다 문항을 사용하여 만족의 여러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묻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대학생활 만족도는 태도, 개인특성, 정신건강 등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이를 위해서 학교에 대한 투쟁의사, 학생회에 대한 신뢰, 취업가능성, 성격, 부모와의 관계, 정신건강 등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단면별 요인들과 개인특성 요인들은 전체적 만

족과 투쟁의사를 얼마만큼 예언해 주는가?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5) 학교와의 일체감의 예언에 유의하게 기여하리라고 가정된 구성 개념들에 의해서 일체감 수준이 유의하게 예언되는가? 예언된다면 어떤 구성개념들이 일체감의 예언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하는가? 역시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 방 법

### 조사대상

효성여자대학교 재학생 864명이었다. 빠뜨린 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유사문항에 대한 반응간의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음) 34명의 자료를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830명이 응답한 자료가 처리되었다. 이를 계열별로 보면, 인문 사회계 393명(47.3%), 자연계 242명(29.2%), 예체능계 195명(23.5%)이었다.

### 조사도구

설문지는 크게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태도척도, 개인특성척도 및 정신건강척도로 구성되며, 총 16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들의 생활만족도 또는 적응도를 측정하는 전국 각 대학 학생생활 연구소에서 사용한 척도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 만족의 차원은 학교와의 일체감, 교수와의 관계, 대학운영정책, 전공에 대한 만족, 동료관계, 선후배 관계, 학생회에 대한 만족, 사무직원과의 관계, 장학금, 도서관, 취업가능성 및 복지시설의 12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기존의 연구를 참조해서 Likert형의 5점 평정척도를 가진 63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 대학생활 태도척도

학생회 활동, 학습태도, 진로 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를 가지고 있다.

### 개인특성 척도

부모와의 관계, 가정분위기, 통학편이성, 개인적 행복도, 신체 및 정신건강, 성격에 대한 만족, 학습 기술 및 미래관 등에 대해서 5점 평정척도를 가진 2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정신건강 척도

SCL-90-R의 9개 하위척도 중 주로 신경증적 증상을 진단하는 강박증(10문항), 대인예민성(9문항), 우울증(13문항), 불안(7문항) 및 적대감(6문항)의 5개의 하위척도 45문항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 조사절차

조사 실시전 약 2주에 걸쳐서 학생생활 연구소의 집단상담 참가자 50여명에게 10명 단위로 5회에 걸쳐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의 적절성, 애매성, 응답시간, 응답과정에서의 방어적인 태세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문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1990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3주에 걸쳐서, 교양선택과 일반선택 과목 수강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약 40명에서 90명의 단위의 수강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조사의 목적, 설문응답 방법 등을 설명하여 조사하였으며, 응답 소요시간은 35분에서 45분까지 걸렸고 대부분이 40분정도에 응답을 완료하였다.

## 결 과

### 대학생활 만족도

#### 대학생활 만족도의 요인구조

대학생활 만족도는 단일 구성체가 아닌 복합적인 구성체이다. 즉, 일체감, 교수와의 관계, 학교 운영정책, 복지후생 등 다양한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63개의 대학생활 만족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1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요인 XV와 XVI는 각각 1개의 문항만 포함되었으며 해석도 애매해서 제외시켰다. 14개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대학생활 만족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내 용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R^2$
본교생 된것이 자랑스러움	.75														.63
시간이 지날수록 본교에 정이듬	.75														.64
고교 후배, 친지들에게 본교 진학 권함	.69														.56
본교의 전체적 분위기가 내게 맞음	.69														.62
친구, 친지에게 본교 좋은점 알리려 애씀	.58														.57
본교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대학임	.54														.45
앞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이 기대됨	.53														.43
학교에 들어서면 마음이 즐거움	.50														.54
타대학생들을 만나면 위축감이 듦	.50														.51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따듯이 대함		.79													.68
교수님들은 학생문제에 관심이 있음		.78													.68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인격존중		.74													.64
교수님들은 학생진로에 관심이 많음		.73													.63
교수님들은 학생들과의 협력, 좋은 관계 위해 노력		.72													.61
교수님들이 바움에 듦		.60													.53
교수님들이 학생 품성지도에 관심이 많음		.48													.45
교수님들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음		.44													.49
학교측은 학생, 교직원 후생복지 향상 위해 노력			.75												.65

문항내용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r^2$
학교측은 학교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학생비판 수용			.71												.57
학교측은 학생불만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			.70												.64
학교측은 복지시설확충, 운영상태 개선 위해 노력			.64												.53
학교 발전을 위해 학생의견과 참여 권장			.56												.41
복지시설 운영상태 양호			.50												.49
본교는 여대특성 살리기 위한 특별정책 마련			.47												.49
본교는 시대변화에 탄력성있게 운영			.42												.51
전공학과에 만족함				.83											.74
졸업후 계속공부시 현재전공 선택할 것임				.81											.71
진로계획은 현재전공과 연관				.62											.60
개설중인 전공과목이 내 적성, 흥미와 일치				.55											.55
전과가 가능하면 타과로 옮기고 싶다.				-.79											.71
사무직원들은 대개 학생에게 친절					.84										.74
사무직원들 학생문제 심의있게 해결					.78										.72
사무직원들 학생에게 무례한 태도, 거친행동 흔히함					-.72										.58
사무직원들 자세가 위압적이고 딱딱함					-.79										.67
학생회는 학생의견을 잘 수렴하여 대변					.83										.73
학생회는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 해결					.77										.69
대의원회는 학생의견을 잘 대변함					.64										.53
학생회 주관 각종행사는 아주 유익하고 만족을 줌					.60										.55
도서관 시설미 미흡함								-.82							.71
도서관 이용이 불편함								-.70							.60
타대학에 비해 제반 학교시설이 우수								.55							.48
도서관 장서가 충분함								.62							.50
장학금 수혜자수는 타대학에 비해 적음								-.77							.65
장학금 지급액수 너무 적음								-.74							.66
장학금 지급방법은 아주 타당함								.60							.52
학과 친구들과 잘 어울림									.75						.65
학과 친구들이 마음에 듦									.73						.68
마음 터놓고 지내는 학과친구가 있음									.66						.50
혼자서 생각하고 조용하게 될 공간 없음										-.65					.59
여가선용 위한 공간 부족										-.59					.63
학생취업과 관련된 대책 미흡											-.51				.53
수강신청시 수강할 과목이 마땅치 않음											-.30				.53
학교가 학생 진로계획을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											.26				.45
교수님들의 시험감독이 철저함												.61			.52
교수님들의 성적 평가는 공정함												.55			.50
컨닝을 요령껏하는 학생이 장학금 받는 경우 있음												-.70			.58
현재 전공으로 장래취업이 힘들것 같음													-.77		.71
졸업후 취업에 대해 늘 불안													-.59		.57
학생자치활동 위한 각종시설 적절														.80	.67
씨클활동 위한 각종시설 적절														.69	.59
학생회 활동은 유익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														.43	.50
$a^2$	4.27	4.25	3.52	3.29	3.10	2.69	2.62	2.44	2.14	2.08	1.65	1.65	1.56	1.52	36.84

이들 14개 요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요인 I(일체감) :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들로서 모두 9문항이다.

요인 II(교수와의 관계) : 교수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서 8문항으로 구성된다.

요인 III(학교정책에 대한 만족) : 학교의 복지후생, 의견수렴, 장단기 운영계획 등에 관련된 문항들로서 8문항으로 구성된다.

요인 IV(전공에 대한 만족) :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 전공과 진로계획, 전과 의사 등에 관련된 문항들로서 5문항이다.

요인 V(사무직원과의 관계) : 사무직원의 친절, 위압적인 자세 등에 대한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VI(학생회에 대한 만족) : 학생회의 의견수렴, 문제해결,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VII(도서관) : 도서관 시설, 이용, 장서량 등에 대한 문항들로서 모두 4문항이다.

요인 VIII(장학금) : 장학금수혜자수,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련된 3문항이다.

요인 IX(교우관계) : 친구들과 어울림, 친구가 마음에 듦,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음에 대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X(여가공간) : 여가 및 휴식 공간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XI(학교의 진로대책) : 학교의 취업대책, 진로계획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3문항이다.

요인 XII(취업 가능성) : 현재의 전공으로 취업불안, 졸업후 취업 문제에 관한 2문항이다.

요인 XIII(성적평가공정성) : 교수들의 시험감독, 성적평가, 컨닝에 대한 3문항이다.

요인 XIV(학생자치활동 및 시설) : 자치활동을 위한 시설, 학생회 예산낭비 등 3문항으로 구성된다.

전체적 만족과 단면별 만족간의 상관관계  
 대학생활에 대한 전체적 만족을 ‘대체로 나의 대학생활은 만족스럽다’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과 요인별 또는 단면별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4개의 요인을 제외하고는

표 2. 전체적 만족과 단면별 만족간의 상관

요 인	적률상관계수(r)
요인 I. 일체감	.52***
요인 II. 교수와의 관계	.26***
요인 III. 학교정책에 대한 만족	.13***
요인 IV. 전공에 대한 만족	.31***
요인 V. 사무직원과의 관계	.04
요인 VI. 학생회에 대한 만족	.09**
요인 VII. 도서관	.11**
요인 VIII. 장학금	.03
요인 IX. 교우관계	.30***
요인 X. 여가공간	.11**
요인 XI. 학교의 진로대책	.06
요인 XII. 취업가능성	.15***
요인 XIII. 성적평가	.08*
요인 XIV. 학생자치활동 및 시설	.05
평균	.35***

\* $p < .05$ , \*\* $p < .01$ , \*\*\* $p < .001$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직무만족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 만족과 단면별 만족의 상관은 대체로  $r=.35-.40$ 수준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체감, 전공에 대한 만족, 교우관계 요인이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사무직원과의 관계, 장학금, 학교의 진로대책, 학생자치활동 및 시설 요인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 대학생활 만족도와 관련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대학생활 만족도의 각 요인과 전체는 시위에 대한 태도, 자신의 성격, 정신건강 등과 어떠한 상관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다음의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운동 및 시위와 관련된

태도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요인별로는 교수와의 관계, 학교 정책에 대한 만족, 사무직원과의 관계, 도서관, 장학금, 학교의 진로대책, 취업가능성 등이 특히 더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감, 유능감, 확고한 인생목표, 개인적 행복 등에 관련된 문항들이 대학생활 만족도와 관계가 밀접하다. 즉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인생 목표가 뚜렷하고, 생활이 행복할수록 보다 긍정적으로 대학생활을 한다. 부모님의 기대에 못미칠수록 대학생활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대학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치

표 3. 대학생활 만족도와 관련변인들간의 상관

관련변인	대학생활 만족 요인														전체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학교에 대한 투쟁의사	-.07	-.19***	-.19***	-.07*	-.22***	.01	-.14***	-.15***	-.06	-.09*	-.20***	-.13***	-.01	-.09**	-.23***
시위를 위한 시위가 있음	.08*	.12***	.15***	.00	.07**	.09**	.09*	.09*	.15***	.07*	.08*	.04	.08*	.14***	.17***
학생회보다 학교측에 더 승인이 감	.11**	.19***	.39***	.06	.16***	.01	.20***	.21***	.03	.08*	.22***	.15***	.14***	.10**	.30***
학생운동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득보다 실이 많음	.03	.11**	.15***	-.04	.10**	-.10**	.12***	.12***	-.02	-.04	.10*	.04	.01	.04	.08*
앞으로 학생운동이 더 활발해 질 것임	.02	-.02	-.02	.03	-.06	.16***	-.02	-.01	.03	.02	-.02	-.02	-.03	-.02	.01
총학생회의 축제는 바뀌어야	-.06	.03	-.14***	.02	-.09**	-.24***	-.13***	-.07*	-.08*	-.10**	-.14***	-.02	-.13***	-.14***	-.20***
대사에 자신감 부족	-.26***	-.10**	-.02	.22***	.03	.06	-.07	.03	-.07	-.08*	-.01	-.15***	-.02	.04	-.15***
앞으로 유능한 사람 될 것임	.24***	.00	-.07*	.22***	.01	-.03	-.03	-.08*	.05	-.01	-.05	.20***	-.06	-.05	.08
확고한 인생관 있음	.26***	.07*	-.01	.27***	-.03	-.05	.00	-.03	.04	.05	.03	.20***	.02	.03	.15***
현재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함	.53***	.21***	.13***	.26***	.04	.12***	.12***	.08*	.28***	.12***	.14***	.20***	.05	.09**	.36***
나의 장래는 밝음	.32***	.13***	.03	.26***	.05	-.04	-.02	.00	.11**	-.03	.05	.32***	.00	.01	.20***
부모님의 기대에 못미침	-.21***	-.12***	-.12***	-.27***	-.03	-.02	-.08*	-.10**	-.07*	-.05	-.28*	-.23***	-.04	.00	-.24***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음	-.27***	-.10**	-.06	-.19***	-.02	.00	-.06	-.01	-.11**	-.04	-.11	-.15***	-.01	.02	-.19***
가장분위기 화목	.13***	.10***	.08*	.10**	.04	.00	.00	.00	.15	.08***	.05*	.12	.06***	.07	.15***
정신건강	.29***	.13***	.13***	.22***	.15***	.04	.11**	.10**	.19***	.13***	.15***	.22***	.11**	.05	.33***

막으로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매우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학생활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시사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 대학생활 만족도 예언요인에 관한 중다회귀 분석

먼저 단면별 만족도 14개 요인들에 의해서 전체적 만족도를 예언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면별 만족도 14개 요인들과 전체적 만족도 측정치의 중다상관계수(R)는 .5570, 중다결정계수( $R^2$ )는 .3152으로서 14개 단면별 만족도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된 전체 만족도 변량이 31.52%이었다. 그리고 중다회귀계수에 의한 전체적 만족도의 중다예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4,771}=25.35, p<.001$ ).

이어서 14개 단면별 만족도 가운데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요인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역행적 단계별 중다회귀분석(backwar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5개 요인만이 유의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 5개 요인의 전체적 만족도 설명변량은 31.03%로서 나머지 9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단지 0.39%에 지나지 않아 매우 사소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8개의 개인적 특성 요인들에 의해서 전

체적 만족도를 예언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8개 요인이 전체적 만족도 측정치 변량의 28.47%를 차지하였다. 즉, 중다상관계수는 .5336, 중다결정계수는 .2847로서 가정환경 및 개인적 특성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된 전체적 만족도 변량이 28.47%였다. 그리고 중다회귀계수에 의한 전체적 만족도의 중다예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8,812}=40.41, p<.001$ ). 전체적 만족도 예언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요인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역행적 단계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2개의 요인만이 유의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 2개 요인의 전체적 만족도 설명변량은 28.02%로서 나머지 6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0.45%에 불과하여 사소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당국과 투쟁해야한다’는 태도 측정치를 14개 단면별 만족도가 얼마나 예언해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14개 단면별 만족도와 학생들의 투쟁의사 측정치의 중다상관계수는 .3439, 중다결정계수는 .1183으로서 14개의 단면별 만족도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된 학생들의 투쟁의사 변량이 11.83%였다. 그리고 회귀계수에 의한 중다예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4,772}=7.40, p<.001$ ). 역

표 4. 전체적 만족도를 예언하는 만족요인들의 역행적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 언 변 인	b계수	$\beta$ 계수	t
상수	-.28	.00	-1.44
일체감	.63	.41	11.96***
교수와의 관계	.11	.07	2.19*
전공에 대한 만족	.16	.15	4.72***
교우 관계	.15	.12	3.54***
학교의 진로계획	-.08	-.04	-1.47 <sup>△</sup>

△  $p<.15$ (이하 같음)

표 5. 전체적 만족도를 예언하는 개인적 특성요인들의 역행적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 언 변 인	b계수	$\beta$ 계수	t
상수	-.02	.00	-.08
성격에 대한 만족	.33	.17	5.01***
개인적 행복도	.56	.43	12.98***



행적 단계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9개의 요인이 유의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설명변량은 11.54였다.

### 일체감

#### 일체감과 구성개념별 측정치간의 단순상관

일체감 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체감 요인을 제외한 13개의 대학생학 만족요인 및 8개의 개인적 요인들과 일체감의 단순상관을 Pearson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개의 구성개념 측정치

들중 19개 구성개념이 일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장학금 및 학습기술 요인만이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19개 구성개념의 측정치들이 각각 단독으로 일체감 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어서 각 구성개념 측정치가 높을수록 일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은 개인적 행복, 전공에 대한 만족, 교우관계 및 교수와의 관계 등이었다.

#### 일체감 예언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먼저 13개 만족 요인들에 의해서 일체감을 예언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만족 요인들이 일체감 측정치의

표 6. 투쟁의사를 예언하는 만족요인들의 역행적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 언 변 인	b계수	β 계수	t
상수	1.07	.00	4.53***
일체감	-.13	-.08	-2.15*
교수와의 관계	.12	.08	2.04*
학교 정책에 대한 만족	.30	.16	3.99***
전공에 대한 만족	.06	.06	1.57^
사무직원과의 관계	.11	.09	2.34*
학생회에 대한 만족	-.29	-.17	-4.73***
여가공간	.11	.09	2.41*
학교의 진로대책	.16	.09	2.32*
취업가능성	.08	.08	2.15*

표 7. 일체감과 구성개념들과의 단순상관

구성개념	상관계수	구성개념	상관계수
<u>만족요인</u>		<u>개인적 요인</u>	
교수와의 관계	.33***	부모와의 관계	.18***
학교정책에 대한 만족	.19***	가정분위기	.07*
전공에 대한 만족	.36***	성격에 대한 만족	.28***
사무직원과의 관계	.09*	미래관	.27***
학생회에 대한 만족	.16***	신체 및 정신건강	.12***
도서관	.19***	학습기술	.05
장학금	.06	개인적 행복	.41***
교우관계	.34***	동학편이성	.09*
여가공간	.15***		
학교의 진로대책	.18***		
취업가능성	.19***		
성적평가공정성	.07*		
학생자치활동 및 시설	.12***		

변량의 30.0%를 차지하였다. 즉, 중다상관계수는 .548, 중다결정계수는 .300으로서 13개 만족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된 일체감 변량이 30.0%이었다. 그리고 중다회귀계수에 의한 일체감의 중다예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3,773}=25.49, p<.001$ ).

이어서 13개 구성요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요인을 가려내기 위하여 역행적 단계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7개 요인만이 유의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 7개 요인의 일체감 설명변량은 29.6%로서 나머지 6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단지 0.4%에 지나지 않아 일체감 수준을 예언함에 있어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8개의 개인적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하고 일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별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다회귀결정계수가 .275로서 일체감 측정치의 전체변량을 27.5% 설명하였으며, 중다회귀계수에 의한 중다예언은 유의하였다( $F_{8,803}=38.11, p<.001$ ). 역행적 단계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유의한 수준에 도달한 요인은 3개였는데, 이들 3요인의 일체감 설명변량은

26.6%였다.

표 8과 표 9를 통해서 볼 때 개인적 요인보다는 만족 요인이 일체감의 예언에 좀 더 크게 기여하는 것 같으며, 만족요인들 중에서는 대인관계, 학업관계 및 복지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구성개념들 중 취업관련 요인들은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본 조사의 대상이 여학생인 관계로 여학생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 의욕 및 기대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덕웅, 한백희, 김정남과 성한기(1988)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애사심의 결정요인을 조사하여 10개 요인이 애사심의 선행요인임을 제시했는데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일체감 예언요인들과 상당히 중복된다. 그들은 애사심을 회사를 위해 협력할 의도라고 조작적 정의하고 462명의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2개의 예언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했다. 산업장면과 학교장면은 성격상 차이가 많지만 한덕웅 등(1988)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애사심 및 일체감을 잘 예언하는 요인을 비교해보면, 애사심 예언요인 중의 직무만족, 봉급제도, 동료와의 인간관계 및 리더와의 인간관계 요

표 8. 일체감을 예언하는 만족요인들의 역행적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예 언 변 인	b계수	$\beta$ 계수	t
상수	.72	.00	4.88***
교수와의 관계	.16	.15	4.65***
전공에 대한 만족	.22	.31	10.39***
학생회에 대한 만족	.09	.08	2.66***
도서관	.10	.11	3.35***
교우관계	.22	.26	8.28***
여가공간	.05	.06	2.01*
성적평가의 공정성	-.05	-.06	-1.77 <sup>△</sup>

<sup>△</sup> $p<.10$ 수준

표 9. 일체감을 예언하는 개인적 요인들의 역행적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예 언 변 인	b계수	$\beta$ 계수	t
상수	1.61	.00	13.93***
미래관	.11	.12	3.60***
개인적 행복	.37	.44	12.69***
통학편이성	-.03	-.07	-2.35*

인은 일체감 예언요인 중의 전공에 대한 만족, 성적 평가의 공정성, 교우관계 및 교수와의 관계 요인과의 동일한 구성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견인 등(1988)에서도 학문적 만족도와 인간관계 요인이 일체감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활 만족요인을 확인하고 대학생활의 주요태도, 개인특성,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또한 학교와의 일체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를 논의해 본다.

첫째, 대학생활 만족도의 차원에 관한 것으로 요인분석 결과 1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서는 문항간에 상관이 높은 것끼리 묶여져 적정의 축에 따라 회전되어 요인이 추출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는 척도라 하더라도 단순히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여져서 같은 요인으로 추출될 수 있다. 그리고 요인분석에 의한 차원은 조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같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표집이나 측정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김준곤, 1988; Locke, 1976).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ocke(1976)는 일차적으로 요인분석을 하고 개념적으로 충분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연구자가 이를 조정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의 14개 차원중 요인 XI(학교의 진로대책)과 요인 XII(취업가능성)를 합쳐서 '진로 및 취업'요인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또 요인 XIV(학생자치활동 및 시설)와 요인 X(여가공간)은 '복지시설'요인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둘째, 대학생활 만족도와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학교에 대한 투쟁의사'는 만족도의 대부분의 요인과 유의한 역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장면에서 노사관계와 직무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Hamner와 Smith(1978), Schriesheim(1978), Odewhan과 Petty(1980), Berger, Olson 및

Boudreau(1983)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투쟁의사를 종속변인, 단면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삼아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학교정책에 대한 만족, 학생회에 대한 만족, 교수와의 관계, 일체감, 사무직원과의 관계, 여가공간, 취업가능성, 학교의 진로대책 요인이 유의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을 없애고 면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인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현재생활에 관한 행복도 학생생활 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여러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학생활이 만족스럽기에 자신이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의 방향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남겠지만, 대학이 학생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만족감을 높여준다면 대학생들의 행복감 증진에도 틀림없이 기여하리라고 본다. 이에 관해서는 행복 또는 주관적 만족에 관한 연구(김준곤, 1986; Bradburn, 1969; Campbell, 1976; Diener, 1984; Wilson, 1967)로부터 시사받을 점이 많다.

네째, 대학생활 만족은 자신들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만족과 정신건강이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Kornhauser(1965)의 연구결과와 학생만족과 불만족요인을 연구한 Beelick(197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활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운영의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생활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심리검사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각종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기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체감에 관련되리라고 가정된 13개의 대학생활 만족요인과 8개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일체감 수준이 유의하게 중다 예언될 수 있었고, 장학금 및 학습기술을 제외한 19개 구성개념이 일체감

과 유의한 단순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일체감의 예언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7개의 대학생 생활 만족 요인과 3개의 개인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주로 다루어져 온 일체감을 심리학적 구성개념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음을 보이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체감은 만족도 구성체의 한 요인일 수도 있고, 만족도를 증진 또는 감소시키는 독립변인일 수도 있다. 반대로 만족도가 일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즉, 종속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만족도와 일체감에 관한 보다 정교한 관찰과 이론적 모색이 요구된다. 이론적 모형과 실증적 자료 모두가 빈약한 상태에서,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론적 모형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모형이 탐색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 하겠다. 이는 다시 실증적 연구의 배경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순환관계를 이룬다. 특히 한국 실정에 적합한 이론의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재은과 안덕자(1981). 대학생 문제진단 검사 개정 보고. *학생생활연구*, 제17권(이화여자대학교), 70-76.
- 김준곤(1986). 주관적 만족의 측정 및 관련 이론에 대한 고찰. *생활지도*, 제4집(효성여자대학교), 27-45.
- 김준곤(1988). 직무만족의 측정과 관련변인들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1권, 제1호, 55-78.
- 성한기와 서주원(1987). 문제 요인별로 본 대학생 생활 적응도. *학생지도연구*, 제7권(성균관대학교), 35-71.
- 이건인, 박종주 및 손충기(1988). 애교심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학생지도연구*, 제9집(원광대학교), 7-69.
- 이창우(1990). 조직문화. 미발표 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혜성, 손영숙 및 김미경(1989). 대학생 문제진단 및 해결행동 체크리스트 제작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5권(이화여자대학교), 42-103.
- 한덕웅, 전경구 및 이창호(1991). *한국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생생활적응*. 성균관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 한덕웅, 한백희, 김정남 및 성한기(1988). 생산성의 인적 결정요인에 관한 동기론적 연구. *사회심리학 연구*, 제4권 제1호, 59-109.
- 한원택, 서주원 및 성한기(1987). 성대생의 대학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견조사. *학생지도연구*, 제7권(성균관대학교), 3-34.
- 한정신, 강혜원(1989). 대학생 문제진단 검사 개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6집(숙명여자대학교), 5-45.
- Beelick, D. B.(1973). Sources of student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7, 19-23.
- Berger, C. J., Olson, C. A., & Boudreau, J. W.(1983). Effects of unions on job satisfaction: The role of work-related values and perceived rewar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289-324.
- Bradburn, N.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Fisher, B. A. & Ellis, D.G.(1990). *Small group decision making*(3rd ed.). Singapore: McGraw-Hill.
- Hamner, W. C., & Smith, F.J.(1978). Work attitudes as predictors of unionization activ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 415-421.
- Janis, I.L.(1972). *Victims of groupthink*. Boston: Houghton-Mifflin.
- Lawler III, E.E.(1973). *Motivation in work organiza-*

- tions. Monterey, California: Books / Cole.
- Locke, E.A.(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M.D., Dunnett(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 Mooney, R.L., & Gordon, L.V.(1950). *The Mooney problem checklist manual*. N.Y.: Psychological cooperation.
- Odewhan, C.A., & Petty, M.M.(1980). A Comparison of levels of job satisfaction, role stress, and personal competence between union members and nonmembe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 50-155.
- Pennington, D.C., Zvonkovic A.M., & Wilson S.L.(1989). Changes in college satisfaction across an academic term.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0, 528-535.
- Schein, E.H.(1990). Organizational culture. *American Psychologist*, 45, 109-119.
- Schriesheim, C.A.(1978). Job satisfaction, attitudes toward unions and voting in a union representation ele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 548-552.
- Wilson, W.(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Student Life Satisfaction : Components and Predictors**

**Joon-Gon Kim, Han-Gee Seong, Chun-Whue Lee, Kyung-Ja Park**

Hyosung Women's University

Components and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 life satisfaction were attempted to identify. A questionnaire consists of 63 items with 5 point rating scale was administered to each of 830 female students and then 14 satisfaction factors were proved by factor analysis. Mean of 14 factor satisfaction score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overall satisfaction score and these two criteria correlated with such factors as strife against college, confidence to college, happiness, and mental health. To find out predictors of student life satisfactio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resulted that 7 factors of the 22 factors (14 satisfaction factors and 8 personal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d on overall satisfaction. In addition, factors relating identification with college were investigated. Of the 21 satisfaction and personal factors, each of 19 factors correlated with identification with college and 10 factor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prediction of identification.